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학석사 학위논문

성차가 난민 위협과 국가 동일시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 남성 전사 가설을 기반으로

**The Impact of Sex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fugee Threat and National Identification  
: a Male Warrior Hypothesis**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지과학 협동과정  
정 지 수

성차가 난민 위협과 국가 동일시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 남성 전사 가설을 기반으로

지도교수 장 대 익  
이 논문을 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지과학 협동과정  
정 지 수

정지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8월

위 원 장	<u>박 순 영 (인)</u>
부위원장	<u>장 대 익 (인)</u>
위 원	<u>서 은 국 (인)</u>

## 요약(국문초록)

외집단 위협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는 기능적 측면이 존재한다. 남성 전사 가설은 남녀의 전쟁 위협 지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적응적 심리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차가 난민 위협과 국가 동일시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난민 위협이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국가 동일시를 하게 할 것이며, 성별에 따라 국가 동일시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난민 위협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국가 동일시 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위협 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국가 동일시 수준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난민 위협에 대한 조작이 가해진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국가 동일시 수준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효과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집단 간 갈등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성차를 원인변수로서 밝혔다. 더불어 난민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논하였다.

**주요어** : 난민, 외집단 위협, 성차, 남성 전사 가설, 진화심리학

**학번** : 2017-23407

# 목 차

초록(국문요약)	1
I. 서론	5
II. 이론적 배경	7
2.1 위협 기반 관점: 사회심리학적 연구	7
2.2 성차 기반 관점: 진화심리학적 연구	9
III. 연구 개요	11
IV. 예비연구	12
V. 연구 1	14
5.1 방법	14
5.2 결과 및 논의	16
VI. 연구 2	21
6.1 방법	22
6.2 결과 및 논의	24
VII. 종합논의	32
7.1 진화적 관점에 따른 통합적 접근	32
7.2 연구의 제한점 및 장래 연구 방향	33
참고문헌	36
부록	44
[부록 1] 예비연구 절차	44
[부록 2] 연구 1 절차	46
[부록 3] 연구 2 절차 - 위협 조건 시나리오	48
[부록 4] 연구 2 절차 - 통제 조건 시나리오	49
[부록 5] 연구 2 절차	50
영문 초록	57

## 표 목차

[표 1] 연구 1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분석표 .....	16
[표 2] 지각된 위협과 국가 동일시의 성별 차이 .....	17
[표 3] 지각된 위협과 성별이 국가 동일시 - 영예에 미치는 영향 .....	17
[표 4] 국가 동일시와 근원적 동기의 집단차이 .....	24
[표 5] 국가 동일시와 근원적 동기의 성별 차이 .....	25
[표 6] 난민 위협이 국가 동일시 - 영예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조절 효과 .....	26

## 그림 목차

[그림 1] 지각된 위협과 성별이 국가 동일시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	18
[그림 2] 지각된 위협과 국가 동일시 - 영예 간 관계에 성별이 미치는 조절 효과 ..	19
[그림 3] 난민 위협과 성별이 국가 동일시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	26
[그림 4] 난민 위협과 성별이 소속 동기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	28
[그림 5] 난민 위협과 성별이 자기 보호 동기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	29
[그림 6] 난민 위협과 성별이 친족 돌봄 동기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	31

##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난민 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Edwards, 2015). 지금까지 사회과학 분야에서 행해지던 난민 연구는 주로 사회(host society)가 이들에게 보이는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 (Esses et al., 2017). 예를 들어, 사회의 구성원들은 난민을 사회적 위협, 경제적 위협, 상징적 위협 등으로 여기곤 했고, 따라서 부정적인 태도를 내보인다 (Louis et al., 2007; Schweitzer et al., 2005; Yitmen & Verkuyten, 2018; 이용승, 2018). 한국도 최근 난민 문제를 겪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난민 신청자가 2013년 난민법 개정 이래로 1,574명에서 2017년 9,942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한국에서 난민에 대한 적대는 제주 난민 입국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청와대에서 진행된 청원 운동까지 이어졌다.

난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다룬 심리학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Louis et al., 2007). 한국에서도 난민 현상을 다룬 연구는 전무하며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만이 진행되었다 (한국갤럽 연구, 2018; 리얼미터 연구 조사, 2018). 또한 난민에 대한 태도 연구에는 진화적인 설명이 빠져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집단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보다 근원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즉, 이 메커니즘은 남성 간 갈등을 통해 적응되어 왔으며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들을 향한 편견과 적대를 형성했다 (Navarrete et al., 2010; Van Vugt et al., 2007; Tooby & Cosmides, 1988).

난민을 비롯한 모든 외집단 위협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는 분명 기능적 (functional) 측면이 존재한다. 진화적 접근에 따르면 남녀 간 달리 적응된 심리 메커니즘을 형성한 것은 집단 간 갈등에서 남녀 별로 달리 마주했던 적응 문제 때문이다 (Tooby & Cosmides, 1988, Wrangham, 1999; Van Vugt et al., 2007; Navarrete et al., 2010). 남녀는 외집단과 마주했을 때 서로 다른 위협을 맞닥뜨렸고, 이를 해결할 기능적인 심리 메커니즘을 적응시켜왔다. 예를 들어, 남성은 외집단 남성과 전쟁을 해야만 했고, 여성은 외집단 남성이 가하는 성적 위협을 마주했다. 따라서 남녀는



서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달랐으며, 더 나아가 집단과 동일시를 하는 수준에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남성은 자신의 자원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내집단과 동일시를 하였을 것이다. 반면, 여성은 자기 자신이나 자식을 지키고자 하였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내집단과 동일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집단, 특히 난민 위협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기능적 초점을 맞추어 성차 연구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난민이 불러일으키는 위협이 국가 동일시와 관련이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또한 진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위협과 국가 동일시 간 관계를 성별이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국가 동일시 수준을 측정해 집단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태도가 성별로 나타나는 심리적 메커니즘임을 밝히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위협 기반 관점: 사회심리학적 연구

외집단 위협을 다룬 사회심리학적 연구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주로 집단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다룬 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은 타인종 집단 (Sears & Kinder, 1971; Stringer & McKie, 1997), 이민자 (Sears & Kinder, 1971; Stringer & McKie, 1997), 난민 (Yitmen & Verkuyten, 2018) 등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집단 (Allport, 1954; Tajfel & Turner, 1986; Fiske, 1998; Levine & Campbell, 1972)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집단 간 갈등과 편견의 작동 원인을 주로 탐색하였으며, 사회적 위협에 반응하여 보이는 정서와 태도를 다루었다 (Blascovich et al., 2001; Correl et al., 2002). 위협 기반 관점은 집단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를 잘 설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자 하는 성차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 사회 정체감 이론

사회 정체감 이론 (Tajfel & Turner, 1986; Brewer, 1979; Tajfel, 1978; Tajfel & Turner, 1979)은 사람들이 집단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존감을 획득하고 유지한다고 본다. 또한 자신을 ‘우리’ (내집단의 구성원)로 범주화하여 사회 정체감을 가지게 된다. 한편, ‘그들’ (외집단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시, 마치 자신의 자존감과 지위가 위협받는 것처럼 느낀다 (Tajfel & Turner, 1979; Turner & Reynolds, 2003). 따라서 내집단 편애와 외집단 비하를 통해 자존감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임의로 집단을 구성한 후, 각 집단의 구성원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참가자들은 내집단 사람에게 자원을 더 많이 분배하는 편향이 발견되었다 (Tajfel and Turner, 1986). 또한 취직을 준비하는 참가자가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는 피드백을 받은 이후, 자신과 같은 인종의 취직 지원자보다 다른 인종의 지원자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Fein & Spencer, 1997).

한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단 동일시는 사람들의 인지와 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 (Ahearne et al., 2005; Fisher & Wakerfield, 1998). 집단 동일시란 자아와 집단 정체성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의미한다 (Swann et al., 2009). 집단 동일시가 높은 사람들은 내집단에 대하여 긍정적인 편향을 보이고, 집단과의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지속적이며 강하다. 또한 내집단과 자아를 동일시해,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위협이 가해진 경우 자아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집단 편애와 외집단 비하를 보인다. 예를 들어, 국가 동일시가 높은 터키인들은 시리아 난민에 대해 낮은 수준의 도움 의도, 기부 의도 등을 보였다 (Yitmen & Verkuyten, 2018).

### 공포 관리 이론

공포 관리 이론에 따르면 (Greenberg et al., 1986; Solomon et al., 1991), 죽음과 존재론적 불안은 인간의 인지와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존감에 대한 욕구, 협력체와 동일시,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죽음 현저성 가설 (mortality salience hypothesis)의 경우 특히 소속감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Wisman & Koole, 2003). 예를 들어, 임의로 집단을 나누었을 때, 죽음과 관련된 자극이 내집단 편향을 야기하였다 (Harmon-Jones et al., 1996). 또한 죽음 현저성은 자신의 세계관을 위반하는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도 관련이 있다 (McGregor et al., 1998). 즉, 협력에는 적응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 소속되고자 한다 (Wisman & Koole, 2003; Mikulincer et al., 2000; Baumeister & Leary, 1995).

죽음 현저성 가설 연구자 중 Arndt를 비롯한 몇 연구자는 성차 현상에 관심을 가졌다 (Arndt et al., 2002). 예를 들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상기한 후 남성은 여성보다 단어완성과제에서 국가와 관련된 단어를 더 많이 완성했다. 연구자들은 국가적 연관 과제에서의 성차가 진화적 원인과 문화적 경험 차이로 인한 것이라 가정하였다 (Arndt et al., 2002; 참고: Koss et al., 1987). 그러나 연구자들은 보다 근원적인 원인인 적응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따라서 집단 간 관계에서의 심리적 메커니

즘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성차를 다룬 일부 연구자들이 있긴 하나 주로 성차는 사회심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위협에 대응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의 기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협의 전반적인 작동 과정과 이에 대한 반응이 주요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화 역사상 적응되어 온 위협과 관련된 심리 메커니즘의 성 차별적 기능은 존재함이 틀림없다. 따라서 진화적 관점에 기반한 통합적, 근원적 설명이 필수적이다 (Boyer et al., 2015).

## 2.2 성차 기반 관점: 진화심리학적 연구

### 남성 전사 가설

남성 전사 가설 (Van Vugt et al., 2007; Van Vugt, 2009; Van Vugt & Park, 2009; Van Vugt, 2011)에서는 인간이 진화 역사상 외집단 위협과 관련된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가 서로 다른 심리적 메커니즘을 적응시켜왔다고 밝힌다. 이는 진화 역사상 지속해서 존재했던 집단 간 경쟁의 선택압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Tooby & Cosmides, 1988; Tooby & DeVore, 1987). 이 선택압은 호모 사피엔스를 대상으로만 작용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침팬지와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기하기 이전부터 집단 간 경쟁은 존재해왔다 (Wrangham 1999; Wrangham & Peterson, 1996). 침팬지는 영토와 자원 (예를 들어 암컷이나 음식)을 두고 외집단과 경쟁 하곤 한다 (Goodall, 1986; Wrangham, 1999). 이때 영토의 주인은 침팬지 수컷이며, 암컷보다 경쟁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을 띤다. 이는 침팬지 각 개체의 적합도를 고려했을 때, 승리하는 편의 이익이 비용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침팬지에게 작용했던 선택압과 마찬가지로 인간 남성은 대체로 영토의 주인으로서 권력과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심리 메커니즘을 적응시켜 왔다.

남성 전사 가설의 요점은 진화 역사상 전쟁 시 남녀 간 번식 성공도와 관련해 서로 다른 선택압을 받았다는 것이다 (Tooby & Cosmides, 1988). 남성이 전사로서 전쟁한 후 승리했을 경우의 번식 성공도를 생각

해보자. 먼저 개인의 번식 성공도를 고려하자면, 장기적 관점에서 승리 후의 번식 성공도인 평균적인 이익이 상해와 죽음 등의 평균적인 비용보다 크다. 집단의 번식 성공도를 고려하여도, 여성의 생존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남성이 전사로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집단에 보다 유리했다.

즉, 외집단 위협에 대응하여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심리적 메커니즘을 적응시켜왔으며 두 가지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로, 협력의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Van Vugt et al., 2007; Van Vugt & Park, 2009). 남성의 경우 집단 간 경쟁에 참여하며 내집단 구성원과 협력을 형성한다. 한편 여성은 외집단 남성에 의한 성적 위협에 대비하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경쟁 집단으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남성은 집단과의 협동에 대한 개념을 활성화하는 한편 여성은 우정과 돌봄의 개념을 활성화한다 (Bugental & Beaulieu, 2009). 또한 외집단 경쟁 시 남성은 강한 공격성을 보이는 한편 여성은 성적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보인다 (Nabarrete et al., 2010). 더 나아가 집단 간 경쟁 자극에 노출된 이후, 공공재 게임을 진행하게 하였을 때 남성은 여성보다 내집단에 더 많은 분배를 하였다 (Van Vugt, 2009).

두 번째로, 연구자들은 남성과 여성이 집단 동일시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 가정했다 (Van Vugt & Park, 2009). 예를 들어, 외집단이 사회적 위협을 가할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집단 충성도를 보였다 (Van Vugt, 2009). 그러나 집단 동일시에 대한 논지를 뒷받침하기에는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난민 위협 시 남성과 여성이 국가 동일시에서 차이를 보이는 지 밝히고자 하였다.

### Ⅲ. 연구 개요

본 연구는 두 편의 연구를 통해 성차가 난민 위협과 국가 동일시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난민 위협으로 인해 사람들의 국가 동일시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며, 난민 위협과 국가 동일시 간 관계에서 성 간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전쟁 시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심리적 메커니즘을 적용하게 한 원인은 서로 다른 위협을 마주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외집단 위협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는 성별로 다른 기능이 있다.

연구 1에서는 위협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국가 동일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람들의 지각된 난민 위협 수준을 측정하였다. 한편 연구 2에서는 측정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실험 설계를 통해 연구 1의 결과를 반복 검증하는 것으로 목표하였다. 연구 2에서는 시나리오 조작을 통해 난민 위협 수준을 조절하였다. 난민 위협에 대한 조작이 가해진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국가 동일시를 하며,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수준의 국가 동일시를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가설 1:** 난민 위협은 국가 동일시를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2:** 난민 위협과 국가 동일시 간의 관계는 성차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추가로 향후 연구를 위해 위협과 관련된 근원적 동기 (소속, 자기 보호, 친족 돌봄 동기 등; Kenrick et al., 2010; Schaller et al., 2017; Brown et al., 2015; Neel et al., 2016) 중 어떤 것이 활성화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난민 위협이 남성의 소속 동기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두 번째로, 난민 위협이 여성의 자기 보호 동기와 친족 돌봄 동기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 IV. 예비 연구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 예비연구로서 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알아보고자 자유-연상 과제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서울대학교 학부생으로, 총 37명 (여성 54.1%; 평균 연령 = 20.03, 연령 표준편차 = 1.62)이었다. 참가자들은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였다. “귀하는 다음 단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떠오르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예시나 이유와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멘 난민”

37명 중 31명의 참가자가 예멘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명의 여성 참가자 중 9명이 안전과 관련된 단어를 언급하였던 반면, 17명의 남성 참가자 중 단 4명만이 안전에 대해 언급했다. 예를 들어, 한 여성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예멘 난민은 나에게 위협할 것 같다. 왜냐하면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할 것 같고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 같다. 성폭행 관련 문제가 특히 우려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또 다른 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예멘 난민 수용 이후 제주도 범죄 발생 비율과 관련된 기사들이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다.”

반면 17명의 남성 참가자 중 5명이 지위나 자원과 관련된 위협을 언급했으나, 20명의 여성 참가자 중 단 4명만이 그러하였다. 예를 들어 한 남성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예멘 난민은 우리 국민에게 해를 가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빼앗아 경제상황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지 않겠지만, 나 같은 대학생들이 자주 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남학생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예멘 난민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예멘 난민을 수용하더라도 그들을 도와줄 재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멘 난민 입장에서라도 우리 사회보다는 다른 사회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의 결과를 코딩 후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샘플 수의 부족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난민에 대한 태도의 성차가 예상한 것과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 V. 연구 1

연구 1에서는 위협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국가 동일시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이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난민에 대한 지각된 위협 수준을 측정하였고, 성별이 지각된 위협과 국가 동일시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 5.1 방법

#### 참가자

전국에 패널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한국인 연구 참여자 256명(여성 = 50.4%, 평균연령 = 43.51, 연령 표준편차 = 13.09)을 모집하였다. 참가자들은 층화 표집방법을 사용해 연령, 성별, 지역 등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 절차

본 연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모든 참가자는 예멘 난민의 신청자 증가 추이 그래프를 보고 난 이후 지각된 위협 문항, 집단 동일시 척도에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응답한 후 설문은 마무리되었다. 모든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또한 모든 연구는 서울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 (SNU 19-01-017).

#### 지각된 위협

난민 위협 상황을 점화하기 위해 예멘 난민의 신청자 증가 추이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그 후 예멘 난민이 한국에 입국한 상황이 남성 전사가설의 기본 배경인 ‘전쟁’ 상황을 느끼는 지를 측정하기 위해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예멘 난민이 우리나라에 침입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평가는 7점 척도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전적으로

동의한다) 상에서 답변하도록 하였다.

### 국가 동일시

다음으로 참가자들의 국가 동일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occas et al. (2016)의 국가 동일시 척도 중 한국의 정서에 맞는 4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외부 집단의 위협을 받았을 때 국가에 기반한 사고를 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두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애착과 영예). 애착 하위 척도는 “한국인이라는 것은 내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등의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기 자신을 집단과 동일시해 자아 개념을 집단으로 확장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영예 하위 척도는 “한국인에게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일이다.” 등의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가자들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한국에 대한 우위와 존경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관한 문항이다. 평가는 7점 척도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전적으로 동의한다) 상에서 답변하도록 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애착 하위 척도에 대한 Cronbach  $\alpha$ 는 .78이었고, 영예에 대한 Cronbach  $\alpha$ 는 .67이었다. 마지막으로 나이, 성별, 지역을 비롯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응답하고 설문은 마무리됐다.

## 5.2 결과 및 논의

모든 데이터 분석은 R (Version 3.5.2), R studio (Version 1.1.463)와 Hayes (2012)의 SPSS PROCESS macro를 통한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 [표 1]에는 측정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모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성별의 경우 지각된 위협, 영예와 .15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난민의 입국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며, 국가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각된 위협의 경우 모든 변수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사람들이 난민의 입국을 위협적으로 지각할수록 국가에 대한 동일시를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연구 1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분석표

	Mean	SD	1	2	3	4	5
1. 성별 (남 0, 여 1)	0.5	0.5	1				
2. 연령	43.51	13.09	-.05	1			
3. 지각된 위협	4.26	1.74	.15*	-.20**	1		
4. 국가 동일시 - 애착	5.24	1.16	-.04	.30**	.15*	1	
5. 국가 동일시 - 영예	3.89	1.4	.15*	.13*	.30**	.35**	1

다음은 각 변수 간 남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T-test 결과는 [표 2]와 같다. 지각된 위협 ( $p = .02$ ), 국가 동일시 - 영예 ( $p = .02$ )는 남녀 차이가 유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남성보다 여성이 난민의 입국을 위협적으로 지각했으며, 한국에 대한 동일시 수준이 높아졌다. 여성이 남성보다 국가 동일시 수준이 높은 것은 남성 전사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는 동일시 수준 측정을 위한 척도 선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 동일시 척도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외집단 경쟁 심리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았다. 국가 동일시 - 영예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 얼마큼 한국이 나은지를 묻기는 하지만, 남성 전사 가설

에서 다루는 집단 간 경쟁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표 2 지각된 위협과 국가 동일시의 성별 차이

	남성		여성		p-value
	Mean	SD	Mean	SD	
지각된 위협	3.99	1.73	4.52	1.72	0.02
국가 동일시 - 애착	5.28	1.16	5.19	1.16	0.54
국가 동일시 - 영예	3.68	1.48	4.1	1.28	0.02

다음은 지각된 위협이 성별과 국가 동일시 - 영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지각된 위협 수준은 국가 동일시 - 영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 $\beta = .43, p < .001$ ). 즉, 가설과 일관되게 난민 증가에 대한 위협을 높게 지각한 참가자들이 낮게 지각한 참가자들에 비해 국가 동일시 - 영예에 대한 응답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성별과 ( $\beta = -.30, p = .08$ ) 지각된 위협과 성별의 상호작용항 ( $\beta = .19, p = .05$ )은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효과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여성이 위협을 높게 지각할수록 국가 동일시 - 영예의 수준에 높게 응답했기 때문이다. 여성도 위협에 따라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로 인해 내집단과 동일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지각된 위협과 성별이 국가 동일시 - 영예에 미치는 영향

	$\beta$	S.E.	t	p	LLCI	ULCI
Constant	3.91	.08	46.86	.00	3.75	4.08
지각된 위협	.23	.05	4.75	.00	.13	.32
성별	-.30	.17	-1.79	.08	-.63	.03
지각된 위협 X 성별	.19	.10	2.01	.05	.00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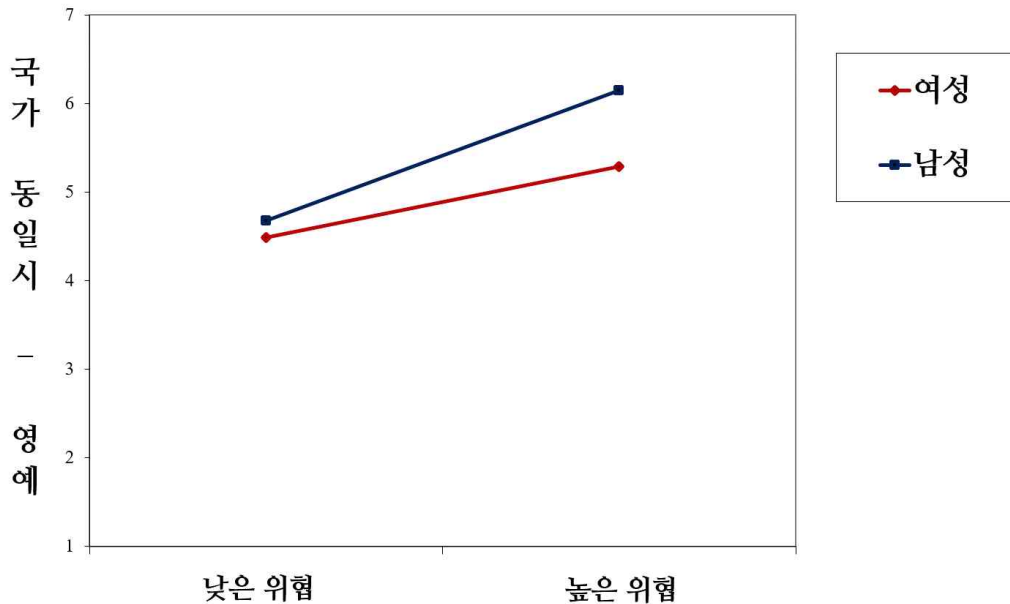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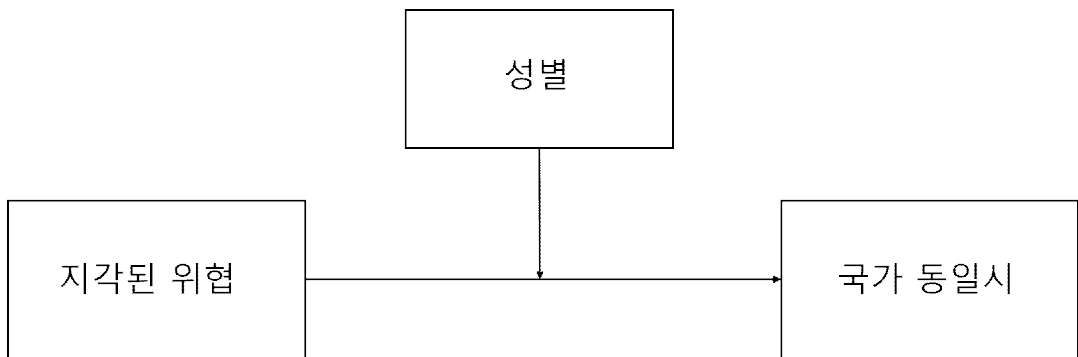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1에서 지각된 위협과 성별이 국가 동일시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본 연구는 심플슬롭분석을 통해 위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의 회귀선은 성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가 높은 집단 (+1SD) 과 낮은 집단 (-1SD) 으로 나누어 두 개의 회귀방정식을 생성한 후, 지각된 위협의 평균값보다 1SD가 높은 값과 1SD가 낮은 값을 각각 대입해 이를 선으로 연결한 것이다. 가설과 일관되게, 남성은 위협을 높게 지각할수록 국가 동일시 - 영예 수준이 높았으며 ( $t(252) = 4.78, p < .001$ ), 여성의 경우 ( $t(252) = 1.96, p = .05$ )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별이 지각된 위협과 국가 동일시 - 영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분석하였다. SPSS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해 조절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직접 효과, 조절 효과 등을 복잡한 과정 없이 효과 크기를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다 (이현웅, 2014). 지각

된 위협과 국가 동일시 - 영예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설과 일관된 방향의 조절 효과가 관찰되었다. 난민의 입국을 위협으로 인지할수록 국가 동일시 - 영예를 더 많이 느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국가 동일시 - 영예의 수준이 높았다 ( $F(3, 252) = 11.04, p < .001, R^2 = .12$ ). 조절 효과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지각된 위협과 국가 동일시 - 영예 간 관계에 성별이 미치는 조절효과 ( $F(3, 252) = 11.04, p < .001, R^2 = .12$ )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설과 일관되게 난민의 입국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할수록 국가 동일시 - 영예에 성차의 조절 효과가 존재했다 (Cohen's  $f^2 = 0.14$ ; small-medium effect size; Cohen, 1992).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난민의 입국을 위협으로 지각할수록 한국과의 동일시가 강해졌는데,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남녀 간 국가 동일시 - 영예에 대한 평균 비교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이 더 높았던 결과와는 반대였다. 이는 남성 전사 가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동일한 결과로, 남성이 자신과 경쟁하게 되는 외집단에 대항하여 국가 동일시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한편, 국가 동일시의 다른 하위 척도인 애착에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 ( $\beta = -.05, p = .54$ )나 조절 효과 ( $F(3, 252) = 2.51, p = .06, R^2 = .03$ )가 나타나지 않았다. 척도를 면밀히 따져보면 영예의 하위 문항(한국인에게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일이다)은 외집단을 상정하고 비교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한편 애착의 하위 문항(한국인이라는 것은 내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분이다)은 단순히 한국인임을 얼마나 자랑스

럽게 여기는지에 대한 문항이므로 외집단을 상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성 전사 가설의 선택압이 ‘전쟁’ 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외집단인 타 국가와 내집단인 한국을 경쟁토록 하는 영예의 하위 척도의 조절 효과만이 유의해야 마땅하다.

## VI. 연구 2

연구 2에서는 실험 설계를 통해 연구 1의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참가자 간 위협 수준을 시나리오를 통해 조작하였으며, 위협과 국가 동일시 간의 인과적 관계를 재검증하고자 하였다. 추가로 참가자들이 위협에 대응하여 어떤 근원적 동기를 느끼는지 향후 연구를 위해 탐색해보았다.

인간의 근원적 동기 이론 (Fundamental motives theory; Kenrick et al., 2010; Schaller et al., 2017; Brown et al., 2015; Neel et al., 2016)에 따르면 동기 시스템은 긴 진화 역사를 거쳐 지속하게 발생했던 적응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형성되어 왔다. 궁극적으로 동기 시스템은 생존과 번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황적 단서를 받아들여 작동한다. 기본적으로 1) 즉각적인 생리적 욕구, 2) 질병 회피를 포함한 자기보호, 3) 소속, 4) 지위 및 자존감, 5) 짝 획득 및 유지, 6) 양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Griskevicius & Kenrick, 2013; Kenrick et al., 2010). 동기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인지와 행동에 대한 이해와 예측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난민 위협의 맥락에서 어떤 동기가 동기화되는지를 밝힌다면 기존의 남성 전사 가설에서 설명하고 있지 못한 숨겨진 동기적 변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난민 위협이 남성의 소속 동기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남성은 사회적 위협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내집단의 남성과 협력해 외집단과 경쟁하고자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난민 위협이 여성의 자기 보호 동기와 친족 돌봄 동기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여성은 외집단 남성이 침입하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돌봐야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 6.1 방법

### 참가자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층화 표집 방법을 사용해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패넬을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210명(여성 = 50%, 평균연령 = 44.48, 연령 표준편차 = 13.27)이었다.

### 절차

참가자들에게 신문 기사를 읽고 내용을 기억한 후 회상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소개하였다. 참가자들은 위협 조건( $N = 103$ , 여성 50)과 통제 조건( $N = 107$ , 여성 55)으로 각 시나리오에 무선배정 되었다.

첫 번째로, 참가자들은 신문 기사를 읽는 과정을 거쳤다. 위협 조건 시나리오는 난민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난민과 관련된 위협 (예를 들어, 성범죄, 테러, 사회적 불안, 경제적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통제 조건 시나리오는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로, 참가자들은 회상 과제를 수행하기 전 시간을 보내기 위한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설문지는 난민에 대한 지각된 경쟁력 수준, 근원적 동기, 그리고 국가 동일시 척도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응답한 후 회상 과제를 수행하고 실험은 마무리되었다.

### 근원적 동기

참가자들은 근원적 동기 척도 (situational affordances for adaptive problems scale Brown et al., 2015) 12문항에 응답하였다. 본 척도는 난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떤 근원적 동기가 활성화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세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 자기 보호, 친족 돌봄 동기). 소속 동기는 “최근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는 내가 속한 집단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등의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얼마큼 내집단과 소속하고자 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alpha = .91$ ). 자기 보호 동기는 “최근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는 다른 누군가나 무언가로부터 위협받을 것이다.” 등의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얼마큼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alpha = .92$ ). 친족 돌봄 동기는 “최근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 아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얼마큼 친족을 돌보고자 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alpha = .92$ ). 평가는 5점 척도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 전적으로 동의한다) 상에서 답변하도록 하였다.

### 국가 동일시

참가자들은 연구 1에서 사용한 국가 동일시 척도 6문항에 응답하였다 (Roccas et al., 2006). 요인 분석 결과 애착 하위 척도에 대한 Cronbach  $\alpha$  는 .84이었고, 영예에 대한 Cronbach  $\alpha$  는 .72이었다.

### 조작 점검

참가자들은 지각된 경쟁 (Fiske et al., 2002) 3문항에 응답하였다. 본 문항은 조작 확인을 위하여 참가자들이 지각하는 난민의 경쟁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예멘 난민에게 특별한 기회 (예: 우선채용, 사회진출)가 주어진다면 내가 속한 집단의 사람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평가는 5점 척도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 전적으로 동의한다) 상에서 답변하도록 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Cronbach  $\alpha$  는 .93이었다.

## 6.2 결과 및 논의

가설 검증에 앞서 실험 시나리오의 위협에 대한 처치가 잘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지각된 경쟁력에 대한 응답을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위협 조건에 배정된 집단의 평균 ( $M = 3.20$ ,  $SD = 1.15$ )이 통제 조건에 배정된 집단의 평균 ( $M = 2.73$ ,  $SD = 1.2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p = .01$ ). 따라서 실험 시나리오의 위협과 관련된 조작은 본 연구의 의도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각 변수의 조건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T-test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점화 조건 간 차이는 국가 동일시 - 영예 ( $p = .05$ ), 자기 보호 동기 ( $p = .01$ ), 친족 돌봄 동기 ( $p = .01$ )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난민 위협과 관련된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한국에 대한 동일시 - 영예 수준이 높았으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친족을 돌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표 4** 연구 2에서의 국가 동일시와 근원적 동기의 집단차이

	위협 조건		통제 조건		<i>p</i> -value
	Mean	SD	Mean	SD	
국가 동일시 - 영예	3.77	1.22	3.45	1.17	0.05
국가 동일시 - 애착	5.29	1.04	5.11	1.03	0.21
FM - 소속	3.39	.83	3.31	.87	0.51
FM - 자기 보호	3.28	.96	2.92	1.03	0.01
FM - 친족 돌봄	3.37	.86	3.01	.98	0.01

Note. FM: 근원적 동기 (Fundamental Motive)

다음은 각 변수의 남녀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T-test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든 변수에서 남녀 차이가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5** 연구 2에서의 국가 동일시와 근원적 동기의 성별차이

	남성		여성		<i>p</i> -value
	Mean	SD	Mean	SD	
국가 동일시 - 영예	3.50	1.26	3.72	1.14	0.17
국가 동일시 - 애착	5.10	1.10	5.29	.96	0.18
FM - 소속	3.34	.89	3.36	.81	0.89
FM - 자기 보호	3.00	1.08	3.18	.94	0.20
FM - 친족 돌봄	3.08	1.01	3.30	.86	0.1

Note. FM: 근원적 동기 (Fundamental Motive)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위협과 국가 동일시 - 영예 간 관계에서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독립변수인 위협의 주효과는 국가 동일시 - 영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 $\beta = .33, p = .05$ ). 즉, 가설과 일관되게 난민 위협 조건에 배정된 참가자들이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 국가 동일시 - 영예에 대한 응답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조절 변수인 성별의 주효과와 ( $\beta = -.24, p = .15$ ) 위협과 성별의 상호작용항 ( $\beta = .34, p = .30$ )은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서 효과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위협 조건(vs. 통제 조건)에 배정된 여성의 경우 국가 동일시 - 영예의 수준에 높게 응답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단순주효과 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설과 일관되게, 남성의 경우 통제 조건보다 위협 조건에서 국가 동일시 - 영예 수준이 높았으며 ( $t(206) = 2.15, p = .03$ ), 여성의 경우 ( $t(206) = .68, p = .50$ )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표 6 난민 위협이 국가 동일시 - 영예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조절 효과

	<i>B</i>	<i>S.E.</i>	<i>t</i>	<i>p</i>	LLCI	ULCI
Constant	3.61	.08	43.94	.00	3.45	3.77
위협	.33	.16	2.00	.05	.00	.65
성별	-.24	.16	-1.45	.15	-.56	.09
위협 X 성별	.34	.33	1.04	.30	-.31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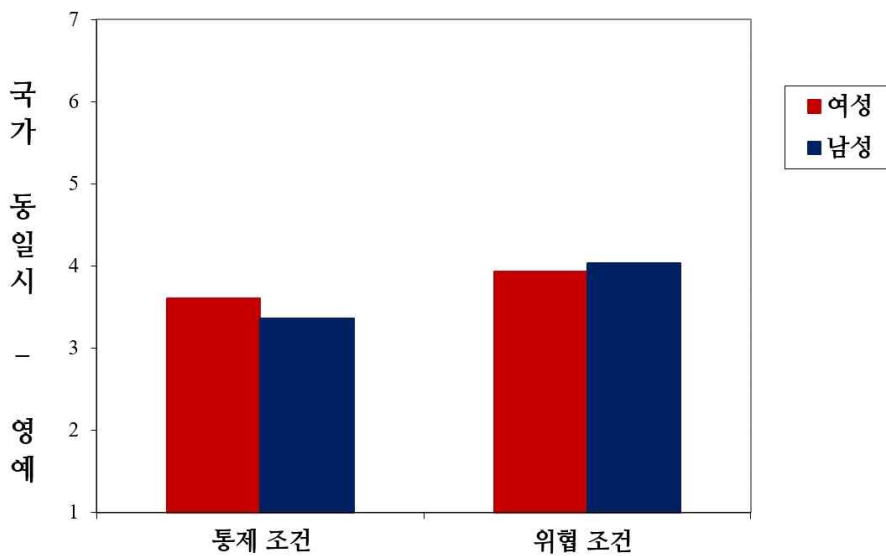


그림 3 연구 2에서 위협과 성별이 국가 동일시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다음으로 지각된 위협이 성별과 국가 동일시 - 영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SPSS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해 조절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설과 일관된 방향의 조절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F(3, 206) = 2.34$ ,  $p = .07$ ,  $R^2 = .03$ ). 또한 국가 동일시의 다른 하위 척도인 애착에도 유의한 조절 효과 ( $F(3, 206) = 1.38$ ,  $p = .25$ ,  $R^2 = .02$ )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효과 크기는 작았으며 ( $\eta^2 = 0.212$ ; Thalheimer & Cook, 2002), 예상했던 조절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설문 문항 순서에 의해 통제 조건에 배정된 참가자들에게도 위협이 가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통제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위협이 극히 낮은 기사를 읽은 후, 난민 증가에 대한 상황을 묘사하는 근원적 동기 척도에 응답하였다. 그 이후 국가 동일시 척도에 응답하였다. 이러한 문항 순서는 모든 조건의 참가자들에게 난민에 대한 위협을 가하였다. 비록 위협과 성별 간 상호작용 효과, 그리고 성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단순주효과 분석을 통해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

### 탐색적 분석 결과

추가로 연구 2에서는 근원적 동기를 부가 측정치로서 향후 연구를 위해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위협과 근원적 동기 간 관계에서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난민 위협이 여성이 아닌 남성의 소속 동기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독립 변수인 위협의 주효과 ( $\beta = .08, p = .51$ ), 조절 변수인 성별의 주효과, ( $\beta = -.02, p = .87$ ) 위협과 성별의 상호작용항 ( $\beta = -.16, p = .50$ ) 모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조작 조건 간 소속 동기의 차이가 없었으며, 남녀 간 차이도 없었다. 이것은 국가 동일시 하위 척도 애착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난민의 경쟁을 자극하는 문항이 아니라 단순히 내집단과 협력하고자 하는 동기를 묻는 문항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이 난민 위협 시 소속 동기가 강해진다기보다는 경쟁심을 자극하는 지위 추구 동기 등이 강해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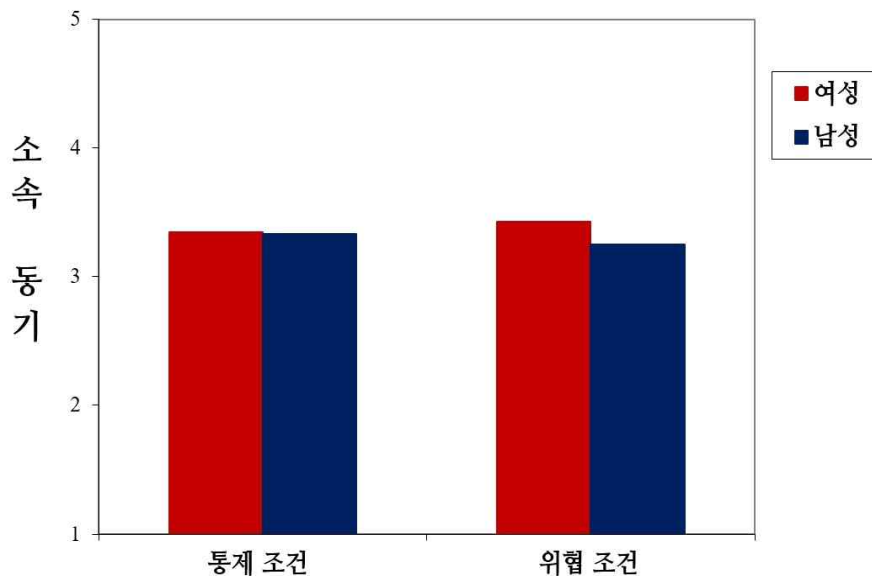


그림 4 연구 2에서 난민 위협과 성별이 소속 동기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두 번째로, 난민 위협이 남성이 아닌 여성의 자기 보호 동기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독립변수 위협의 주효과는 자기 보호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 $\beta = .37, p = .01$ ). 즉, 가설과 일관되게 위협 조건에 배정된 참가자들이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 자기 보호 동기에 대한 응답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조절 변수인 성별의 주효과와 ( $\beta = -.19, p = .17$ ) 위협과 성별의 상호작용항 ( $\beta = -.40, p = .15$ )은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여성의 경우 통제 조건보다 위협 조건에서 자기 보호 동기 수준이 높았으며 ( $t(206) = 2.92, p = .004$ ), 남성의 경우 ( $t(206) = 2.92, p = .88$ )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즉, 난민 위협이 가해진 경우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자기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가 증가했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1종 오류 (false positive)를 쉽게 감지한다는 오류 관리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Al-Shawaf et al., 2018). 다음으로 위협이 성별과 자기 보호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SPSS Process Macro Model 1을 통해 조절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가설과 일관된 방향의 조절 효과가 관찰되었다 ( $F(3, 206) = 3.66, p = .01, R^2 = .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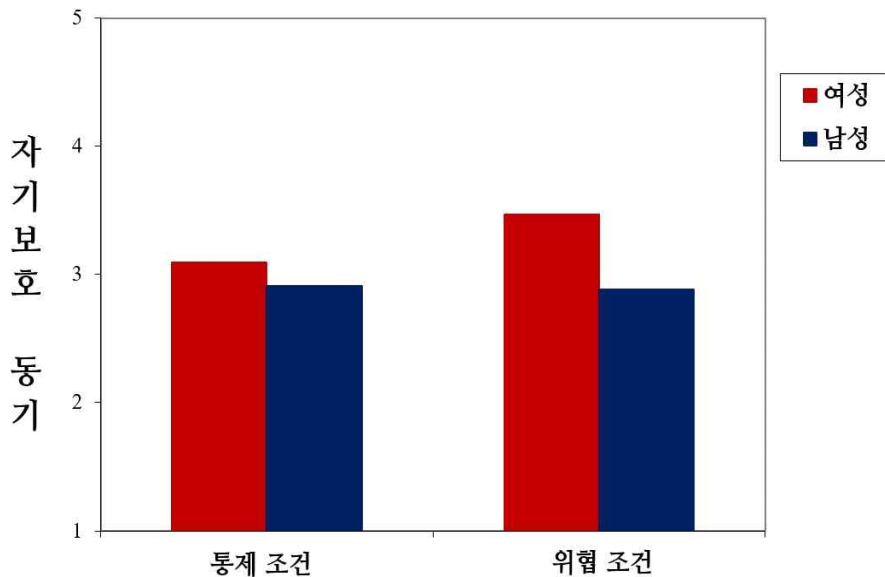


그림 5 연구 2에서 난민 위협과 성별이 자기 보호 동기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마지막으로 난민 위협이 남성이 아닌 여성의 친족 돌봄 동기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독립변수 위협의 주효과는 친족 돌봄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 $\beta = .36, p = .01$ ). 즉, 가설과 일관되게 난민 위협 조건에 배정된 참가자들이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 친족 돌봄 동기에 대한 응답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조절 변수인 성별의 주효과와 ( $\beta = -.23, p = .08$ ) 위협과 성별의 상호작용항 ( $\beta = -.08, p = .75$ )은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여성의 경우 통제 조건보다 위협 조건에서 친족 돌봄 동기 수준이 높았으며 ( $t(206) = 2.22, p = .03$ ), 남성의 경우 ( $t(206) = 1.76, p = .08$ )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즉, 난민 위협이 가해진 경우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친족을 돌보고자 하는 동기가 증가했다. 또한 조절 효과 분석 결과 가설과 일관된 방향의 조절 효과가 관찰되었다 ( $F(3, 206) = 3.64, p = .01, R^2 = .05$ ). 한편, 통제 조건에서는 자기 보호 동기의 남녀 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인간 남성도 또한 자식을 돌보도록 적응해왔기 때문이다 (Geary, 2015). 그러나 위협의 주효과가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만 나타났다. 이는 Tend-and-befriend 모형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사회적 위협 시 여성에게서 코르티솔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Campbell, 1999; Geary, 2010), 자식을 더욱 보호하고자 한다 (Hrdy, 2007). 또한, 진화된 적응 환경 (the environment of evolutionary adaptedness; Bowlby, 1969)을 고려하자면 남성이 전쟁에 떠난 상황에서 여성이 스스로와 자식을 보호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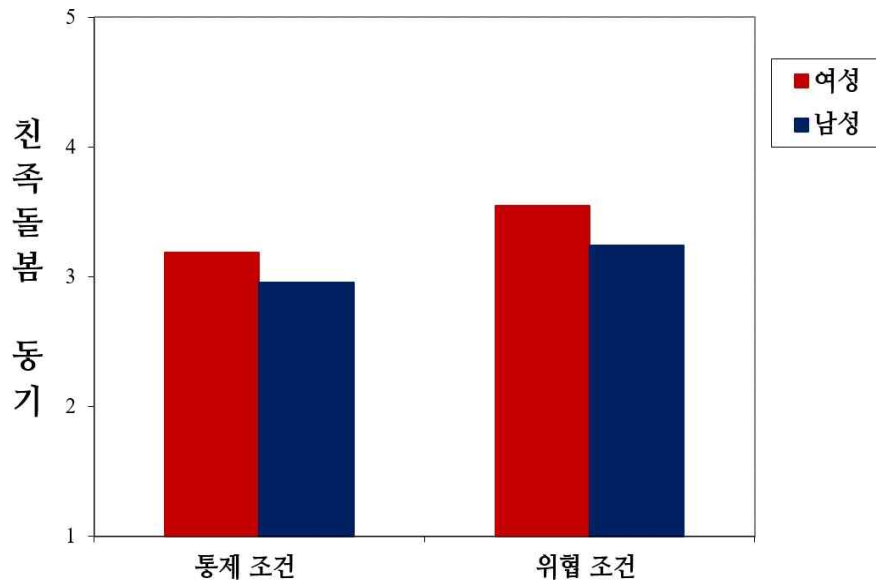


그림 6 연구 2에서 난민 위협과 성별이 친족 돌봄 동기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 VII. 종합 논의

### 7.1 진화적 관점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난민 증가로부터 오는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국가와의 동일시를 높게 느끼는가, 그리고 위협 시 남성이 여성보다 국가 동일시가 높은가를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는 한국인들이 난민의 위협을 높게 지각하였을 때, 국가 동일시 중 영예의 수준이 높아졌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국가 동일시 수준이 강해졌다. 연구 2에서는 난민 위협을 다룬 기사문을 읽은 사람들이 높은 국가 동일시 영예를 느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그러했다. 부가적으로 연구 2에서는 난민 위협 하에 여성이 남성보다 자기 보호 동기와 친족 돌봄 동기를 더 느낀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들이 본 연구에서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남성 전사 가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단 간 경쟁 시 성별로 각기 다른 심리적 메커니즘이 적응해왔다는 것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혔다. Van Vugt와 연구자들은 집단 간 갈등 시 남성과 여성은 집단 동일시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Van Vugt & Park, 2009). 이를 두 편의 연구를 통해 남성 전사 가설의 경험적 연구의 부재를 보완했다.

두 번째로, 집단 간 위협 연구에서 성차 연구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전의 국가 동일시와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다룬 연구에 따르면, 국가 동일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민자나 소수자 집단을 향해 부정적 태도를 쉽게 내보인다 (Blank & Schmidt, 2003; De Figueiredo & Elkins, 2003; Esses, Dovidio, Semenza, & Jackson, 2004; Esses, Wagner, Wolf, Preiser, & Wilbur, 2006). 하지만 이전의 연구들은 단순히 개인차를 다룬 것이지, 근원적인 성차 현상을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진화적 접근을 통해서 더욱 근본적인 원인 변수인 성별의 영향을 밝혔다. 즉, 성차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중시하지 않았던 기능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외집단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는 실용적 함의가 있다. 난민 수용에 대한 국가

적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성별에 따라 난민에 대한 편향을 줄이기 위한 처치 방안을 조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난민이 자원을 앗아가는 경쟁 상대로 느껴지지 않게 난민의 다른 모습을 점화시키거나 여성의 경우 범죄나 성적 위협을 제공하는 상대로 느껴지지 않게 점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남성 전사 가설의 부재한 경험적 결과를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샘플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Van Vugt 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부 대학교 학부생들로, WEIRD (White, Educated, Industrialized, Rich, and Democratic; Henrich et al., 2010) 샘플에 한정되었다 (Van Vugt et al., 2007; Van Vugt & Park, 2009; Van Vugt, 2009).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으로 구성된 한국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남성 전사 가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였다.

## 7.2 한계점 및 장래 연구 계획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한 후 장래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계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남성 전사 가설의 맥락에서 난민이 예시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전쟁 시 대체로 경쟁력 있는 집단이 위협의 대상으로 지각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난민 현상이 진화적 역사상 전쟁과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집단 간 부정적 태도가 단순히 높은 경쟁력을 가진 외집단에만 발현되도록 적용된 것은 아니다. 다른 인종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게도 발현될 수 있다 (Navarrete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진화적 전쟁 맥락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두 연구의 효과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작은 효과 크기를 생각해 보았을 때, 효과 크기가 작지 않다 (Van Vugt, 2009; Cohen's  $d = .36$ ). 이것은 난민이 증가하는 상황이 전쟁의 상황에 비교해 위협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해 현대 사회는 외집단과의 접촉이 빈번해졌음에도 여전히 다른 인종과 외집단을 마주할 기회가 많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난민을 예시로써 다루었다. 난민 현상은 정세에 따라 변화하므로, 위협의 크

기는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 두 편에서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참가자들이 거의 없었다. 제주도는 난민 신청자가 이주해 온 후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거주하는 곳이다. 몇 참가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제주도와 물리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위협과의 거리도 멀어졌다. 예비 연구에 따르면, 37명의 참가자 중 14명이 제주도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난민의 유입이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만약 본 연구가 제주도 거주민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면 더 극적인 결과를 보였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해석은 언제나 유용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더불어 연구 2의 효과 크기는 연구 1의 효과 크기보다 더 작았다. 이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한 것이다. 첫 번째로, 난민 신청자 증가의 위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연구 1과 2의 시행 시기는 5개월 정도 차이가 나며, 약 반년의 시간은 난민 사건을 잊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흥미롭게도 예비 연구에서의 37명 중 14명의 참가자는 그 당시 난민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한 기사를 읽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난민 현상을 다룬 기사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 또는 연민이나 공감을 자아내는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기사가 대부분이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적인 영향 또는 미디어의 영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연구 2의 위협 시나리오는 현 상황이 아닌 향후 5년 이내에 도래할 현상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당장 위협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장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난민 이외의 다양한 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난민 증가 현상을 다루었지만, 그 이외에도 탈북민 또는 통일 이후의 북한 사람 등의 다양한 장면에서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한국의 상황이 아닌 전 세계의 외집단 경쟁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근원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난민 위협 시 남성의 근원적 동기 중 어떤 것이 활성화되는지 밝히지는 못했으나 남성은 지위, 자존감 추구 등이 활성화되리라 예상한다. 여성은 높은 수준의 자기 보호 동기, 친족 돌봄의 동기

가 활성화됨을 밝혔다. 근원적 동기의 매개 효과를 검증해 남성 전사 가설을 동기적 수준에서 더욱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난민 위협을 조작한 시나리오 점화가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해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각 성별에게 남성성 또는 여성성을 점화시킨다면 각자가 지닌 심리적 메커니즘이 더욱 확연하게 작동할 것이다. 다양한 실험설계를 통해 남성 전사 가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 참고문헌

- 이용승. (2018). 난민은 누구이고,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민족연구*, 72, 166-183.
- 이현웅. (2014). 국내외 HRD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고찰. *HRD 연구 (구 인력개발연구)*, 16(3), 225-249.
- Ahearne, M., Bhattacharya, C. B., & Gruen, T. (200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ustomer-company identification: Expanding the role of relationship market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3), 574.
- Allport, G. W., Clark, K., & Pettigrew, T.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 Al-Shawaf, L., Lewis, D. M., & Buss, D. M. (2018). Sex differences in disgust: why are women more easily disgusted than men?. *Emotion review*, 10(2), 149-160.
- Arndt, J., Greenberg, J., Schimel, J., Pyszczynski, T., & Solomon, S. (2002). To belong or not to belong, that is the question: Terror management and identification with gender and ethnic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1), 26.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
- Blank, T., & Schmidt, P. (2003). National identity in a united Germany: Nationalism or patriotism? An empirical test with representative data. *Political Psychology*, 24(2), 289-312.
-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1969
- Boyer, P., Firat, R., & van Leeuwen, F. (2015). Safety, threat, and stress in

intergroup relations: A coalitional index model.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4), 434-450.

Brewer, M. B.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6(2), 307.

Brown, N. A., Neel, R., & Sherman, R. A. (2015). Measuring the evolutionarily important goals of situations: Situational affordances for adaptive problems. *Evolutionary Psychology*, 13(3), 1474704915593662.

Bugental, D. B., & Beaulieu, D. A. (2009). Sex differences in response to coalitional threat.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0(4), 238-243.

Campbell, A. (1999). Staying alive: Evolution, culture, and women's intrasexual aggress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2(2), 203-214.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

de Figueiredo Jr, R. J., & Elkins, Z. (2003). Are patriots bigots? An inquiry into the vices of in-group prid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1), 171-188.

Edwards, A. (2015). Global forced displacement hits record high. Retrieved from UNHCR website: <http://www.unhcr.org/news/latest/2016/6/5763b65a4/global-forced-displacement-hits-record-high.html>.

Esses, V. M., Dovidio, J. F., Jackson, L. M., & Armstrong, T. L. (2001). The immigration dilemma: The role of perceived group competition, ethnic prejudice, and national identity. *Journal of Social Issues*, 57, 389-412.

Esses, V. M., Dovidio, J. F., Semanya, A., & Jackson, L. M. (2004).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The rol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identity. In D. Abrams, M. A. Hogg, & J. M. Marques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clusion and exclusion* (pp. 317-338). New York:



Psychology Press.

Esses, V. M., Hamilton, L. K., & Gaucher, D. (2017). The global refugee crisis: Empirical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public attitudes and facilitating refugee resettlement. *Social Issues & Policy Review*, 11, 78–123.

Esses, V. M., Wagner, U., Wolf, C., Preiser, M., & Wilbur, C. J. (2006). Per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in Canada and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 653–669.

Fein, S., & Spencer, S. J. (1997). Prejudice as self-image maintenance: Affirming the self through derogating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1), 31.

Fisher, R. J., & Wakefield, K. (1998). Factors leading to group identification: A field study of winners and losers. *Psychology & Marketing*, 15(1), 23-40.

Fiske, S. T.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 357-411.

Fiske, S. T., Cuddy, A. J.,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878.

Geary, D. C. (2010). *Male, female: The evolution of human sex difference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Geary, D. C. (2015). Evolution of paternal investment. *The handbook of evolutionary psychology*, 1-18.

Goodall, J. (1986). The behavior of free-living chimpanzees in the Gombe

stream area. *Animal behavior monographs*, 1: 161-311.

Greenberg, J., Pyszczynski, T., & Solomon, S. (1986).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 need for self-esteem: A terror management theory. In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pp. 189-212). Springer, New York, NY.

Griskevicius, V., & Kenrick, D. T. (2013). Fundamental motives: How evolutionary needs influence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3(3), 372-386.

Harmon-Jones, E., Greenberg, J., Solomon, S., & Simon, L. (1996).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intergroup bias between minimal 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6(4), 677-681.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Henrich, J., Heine, S. J., & Norenzayan, A. (2010). The weirdest people in the world?.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3(2-3), 61-83.

Hrdy, S. B. (2007). Evolutionary context of human development: The cooperative breeding model. *Family relationships: An evolutionary perspective*, 39-68.

Kenrick, D. T., Griskevicius, V., Neuberg, S. L., & Schaller, M. (2010). Renovating the pyramid of needs: Contemporary extensions built upon ancient foundation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3), 292-314.

Koss, M. P., Gidycz, C. A., & Wisniewski, N. (1987). The scope of rap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2), 162.

Lambert, P. M. (1997). Patterns of violence in prehistoric hunter-gatherer societies of coastal southern California. *Troubled times: Violence and*

*warfare in the past*, 3, 77-109.

LeBlanc, S. A., Register, K. E., LeBlanc, S. A., & Le Blanc, S. (2003). *Constant battles: The myth of the peaceful, noble savage*. Macmillan.

LeVine, R. A., & Campbell, D. T. (1972). Ethnocentrism: Theories of conflict, ethnic attitudes, and group behavior.

Louis, W. R., Duck, J. M., Terry, D. J., Schuller, R. A., & Lalonde, R. N. (2007). Why do citizens want to keep refugees out? Threats, fairness and hostile norms in the treatment of asylum seeke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1), 53-73.

Maschner, H. D., & Reedy-Maschner, K. L. (1998). Raid, retreat, defend (repeat): the archaeology and ethnohistory of warfare on the North Pacific Rim.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17(1), 19-51.

McGregor, I., & Little, B. R. (1998). Personal projects, happiness, and meaning: on doing well and being your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2), 494.

Mikulincer, M., Birnbaum, G., Woddis, D., & Nachmias, O. (2000). Stress and accessibility of proximity-related thoughts: exploring the normative and intraindividual components of attachmen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3), 509.

Navarrete, C. D., McDonald, M. M., Molina, L. E., & Sidanius, J. (2010). Prejudice at the nexus of race and gender: an outgroup male target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6), 933.

Neel, R., Kenrick, D. T., White, A. E., & Neuberg, S. L. (2016). Individual differences in fundamental social mo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0(6), 887.

Roccas, S., Klar, Y., & Liviatan, I. (2006). The paradox of group-based

guilt: mod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conflict vehemence, and reactions to the in-group's moral vio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4), 698.

Schaller, M., Kenrick, D. T., Neel, R., & Neuberg, S. L. (2017). Evolution and human motivation: A fundamental motives framework.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1(6), e12319.

Schweitzer, R., Perkoulidis, S., Krome, S., Ludlow, C., & Ryan, M. (2005). Attitudes towards refugees: The dark side of prejudice in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7(3), 170-179.

Sears, D. O., & Kinder, D. R. (1971). *Racial tension and voting in Los Angeles* (Vol. 156). Institute of Government and Public Affairs, University of California.

Solomon, S., Greenberg, J., & Pyszczynski, T. (1991). A terror management theory of social behavior: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self-esteem and cultural worldview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4, pp. 93-159). Academic Press.

Stringer, C., & McKie, R. (1998). *African exodus: The origins of modern humanity*. Macmillan.

Swann Jr, W. B., Gómez, Á., Seyle, D. C., Morales, J., & Huici, C. (2009). Identity fusion: the interplay of personal and social identities in extreme group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5), 995.

Tajfel, H. E.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cademic Press.

Tajfel, H., Turner, J. C., Austin, W. G., & Worchel, S.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Organizational identity: A reader*,

56-65.

Tajfel, H., & Turner, J. C. (1986).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relation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7-24.

Thalheimer, W., & Cook, S. (2002). How to calculate effect sizes from published research: A simplified methodology. *Work-Learning Research*, 1.

DeVore, I., & Tooby, J. (1987). The reconstruction of hominid behavioral evolution through strategic modeling. *The Evolution of Human Behavior: Primate Models*, edited by WG Kinzey, 183-237.

Tooby, J., & Cosmides, L. (1988). The evolution of war and its cognitive foundations. *Institute for evolutionary studies technical report*, 88(1), 1-15.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Basil Blackwell.

Turner, J. C., & Reynolds, K. J. (2011). Self-categorization theory. *Handbook of theories in social psychology*, 2(1), 399-417.

Vugt, M. V., Cremer, D. D., & Janssen, D. P. (2007). Gender differences i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The male-warrior hypothesis. *Psychological science*, 18(1), 19-23.

Van Vugt, M. (2009). Sex differences in intergroup competition, aggression, and warfar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67(1), 124-134.

Van Vugt, M., & Park, J. H. (2009). Guns, germs, and sex: how evolution shaped our intergroup psychology.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3(6), 927-938.

Van Vugt, M. (2011). The male warrior hypothesis. *The psychology of*

*social conflict and aggression*, 13, 233.

Wisman, A., & Koole, S. L. (2003). Hiding in the crowd: Can mortality salience promote affiliation with others who oppose one's worldview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511.

Wrangham, R. W., & Peterson, D. (1996). *Demonic males: Apes and the origins of human violence*. Houghton Mifflin Harcourt.

Wrangham, R. W. (1999). Evolution of coalitionary killing.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110(S29), 1-30.

Yitmen, Ş., & Verkuyten, M. (2018). Feelings toward refugees and non-Muslims in Turkey: The roles of national and religious identifications, and multiculturalis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8(2), 90-100.

## [부록 1] 예비연구 절차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예멘 난민에 대한 귀하의 주관적인 생각을 묻습니다.

본 연구에 정답은 없습니다.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응답이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장대익 교수 연구실

귀하는 다음 단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떠오르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예시나 이유와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멘 난민

예시) 예멘 난민은 나에게 -----한 것 같다. 왜냐하면 ~

예시) 예멘 난민은 우리 사회에 -----한 것 같다. 왜냐하면 ~

예시) 예멘 난민은 우리 국민에게 -----한 것 같다. 왜냐하면 ~

예시) 예멘 난민은 제주도 시민에게 -----한 것 같다. 왜냐하면 ~

--

(3분이 지난 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2] 연구 1 절차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의견 조사
- 2) 개인의 성격 특성에 대한 조사

모든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응답이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장대익 교수 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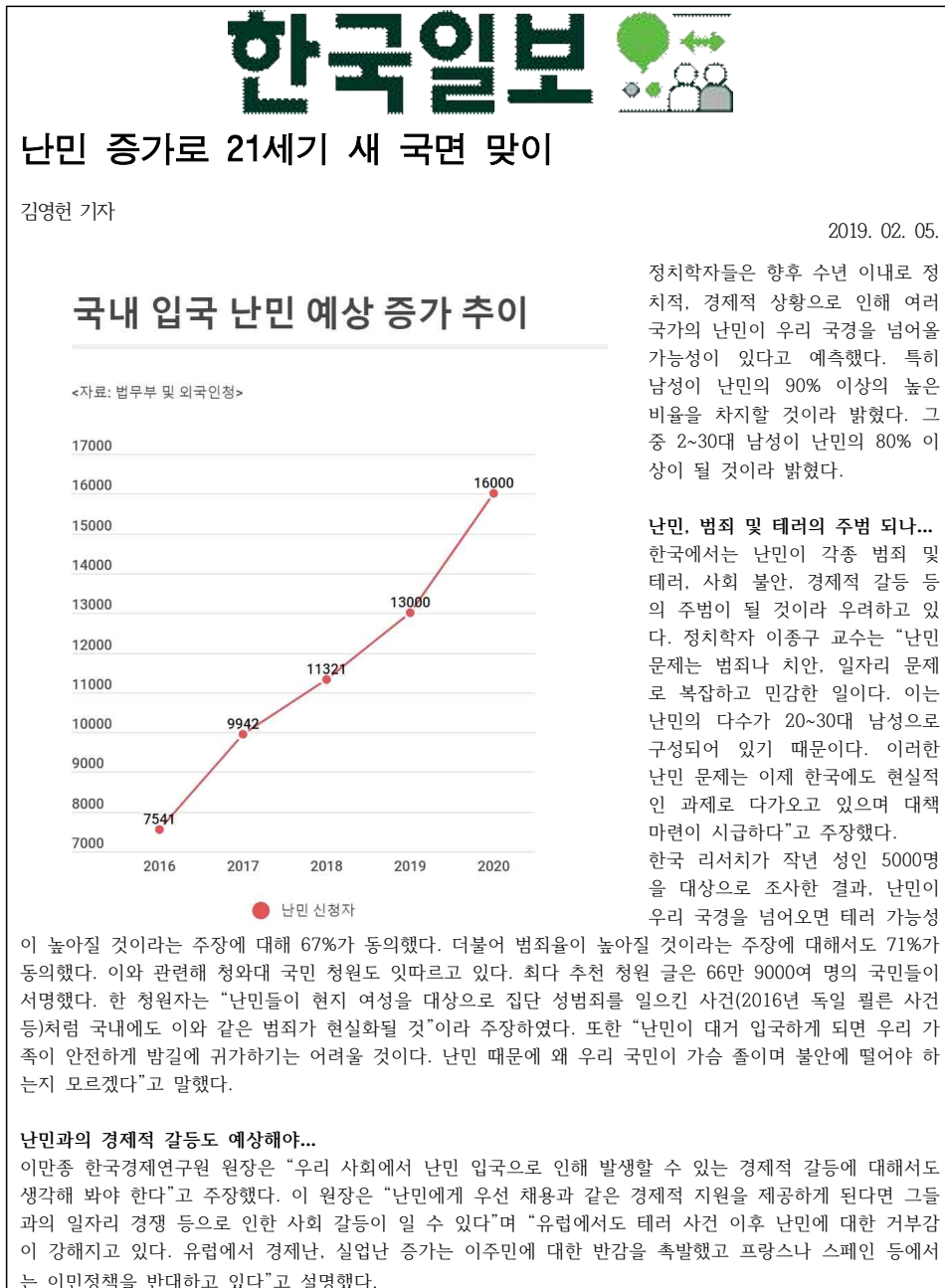
최근 **예멘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예멘 난민 수용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항 번호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대체 로 동의 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 하지 않는다	잘 모르 겠다	약간 동의 한다	대체 로 동의 한다	전적 으로 동의 한다
1	나는 예멘 난민이 우리나라에 침입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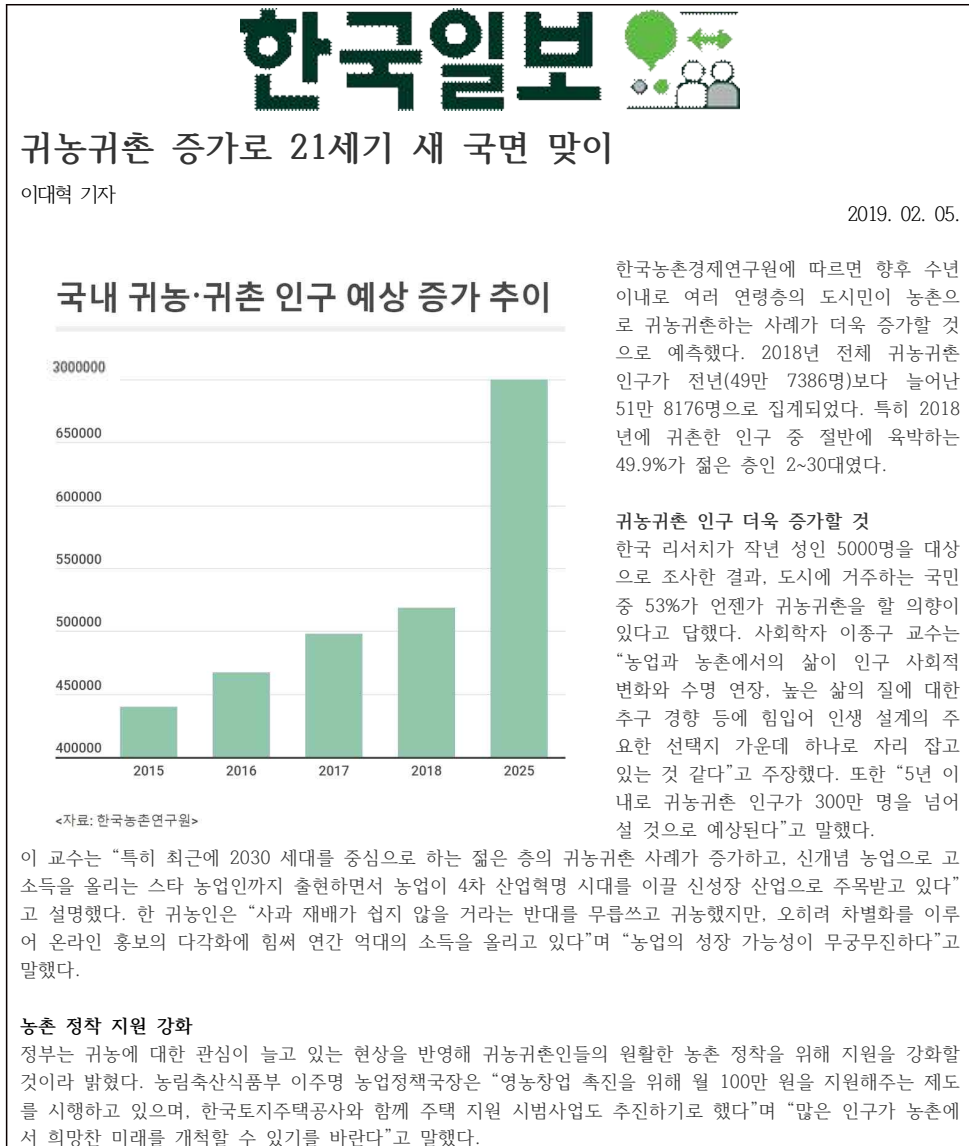
아래 제시된 문장들이 현재의 당신의 삶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당신**에게 얼마나 잘 적용된다고 생각하는지 주어진 7점 척도로 응답해주시요.

문항 번호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대체 로 동의 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 하지 않는다	잘 모르 겠다	약간 동의 한다	대체 로 동의 한다	전적 으로 동의 한다
1	한국인이라는 것은 내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모든 사람이 나를 한국인으로 보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한국인에게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한국은 모든 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낫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부록 3] 연구 2 절차 - 위협 조건 시나리오



## [부록 4] 연구 2 절차 - 통제 조건 시나리오



## [부록 5] 연구 2 절차

# 신문 기사에 대한 회상 연구

<신문 기사에 대한 회상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신문 기사를 읽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전에 읽은 기사의 정보를 얼마만큼 기억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기억-회상 연구
- 2) 개인의 의견 조사

기억 연구 단계에서는 기사 발췌문을 읽은 후 설문지 마지막 단계에서 정보를 얼마나 기억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다양한 개인의 의견을 조사하는 설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 정답은 없습니다.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응답이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인지과학 협동과정

장대익 교수 연구실

## [파트 1] 기억 과제

당신은 다음 페이지에서 지난 달 기사 발췌문을 읽게 됩니다. 그 후 설문  
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사의 정보를 얼마나 기억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기사문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핵심적 내용에 대한 기억을 살펴볼 것이므  
로, 기사문의 내용을 따로 기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기사의 핵심  
사항에 집중해 주의 깊게 읽고 기억할 수 있는 만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  
다.

나는 이 지시문을 읽었으며 바르게 이해하였습니다.

(Y/N)

## [파트 2] 개인의 의견 조사

회상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당신은 기사문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묻는 설문에 응답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나는 이 지시문을 읽었으며 바르게 이해하였습니다.

(Y/N)

## [사회 현상에 대한 의견 조사]

최근 한국에서 난민 입국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진행 중입니다. 본 질문지는 난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유도합니다. 본 질문지에 정답은 없으며, 당신이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번호		전 동 하 지 않 다	혀 의 지 는	다 동 하 지 않 다	소 의 지 는	잘 모 르 겠 다	다 동 하 는 다	소 의 하 는 다	전 동 하 는 다	적 로 의 하 는 다
1	최근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는 내가 속한 집단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최근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는 내가 속한 집단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최근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는 내가 속한 집단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최근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는 소속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최근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는 다른 누군가나 무언가로부터 위협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최근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최근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최근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걱정 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최근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 가족(부모님, 형제자매 등)에게 무언가가 필요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최근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 가족(부모님, 형제자매 등)은 나의 집 중과 돌봄이 필요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최근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 아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최근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한국에 대한 의견 조사]

다음은 한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질문지에 응답하게 됩니다. 본 질문에 정답은 없으며, 당신이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번호		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 지 않는다	잘 모르겠 다	다소 동의한 다	전적으 로 동의한 다
1	한국인에게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은 모든 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낫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의 권위자가 만든 모든 규칙은 대체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국인이라는 것은 내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이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인구통계학적 조사]

1. 귀하의 성별은?

(1) 남성 (2) 여성

2. 귀하의 만 나이는?                      만 \_\_\_\_\_세

3. 귀하의 거주지역?                      \_\_\_\_\_(도, 시, 군)

4. 귀하의 출신지역?                      \_\_\_\_\_(도, 시, 군)

5. 귀하의 정치 성향?

(1) 매우 보수적    (2) 보수적    (3) 중도적    (4) 진보적    (5) 매우 진보적

6. 귀하의 종교? (종교가 없다면 “없음”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7. 설문지 응답에 사용하신 기기는 무엇인가요?

(1) 컴퓨터    (2) 스마트폰    (3) 태블릿    (4) 기타

## [파트 3] 회상 과제

앞서 읽었던 기사문의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다음의 문장을 읽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번호		본 문항을 기억이 있다.	본 문항을 기억이 없다.	잘 모르겠 다.
1	2~30대 남성이 난민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①	②	③
2	향후 수년 이내로 여러 국가의 난민이 우리 국경을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3	한국에서는 난민이 각종 범죄 및 테러, 사회 불안 등의 주범이 될 것이라 우려한다.	①	②	③
4	향후 수년 이내로 귀농귀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5	정부에서 귀농귀촌 인구의 농촌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연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 **The Impact of Sex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fugee Threat and National Identification: a Male Warrior Hypothesis**

Jisoo Jung

Graduate School of Cognitive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identification is presumed to have a functional role in response to intergroup conflicts, such as interactions with incoming refugees. However, one potentially important, but neglected issue in this area concerns possible sex difference. According to male warrior hypothesis, in the warfare context, each sex has faced different selection pressures and has evolved different psychological mechanisms including group identification. This is because the specific threats evoked in intergroup conflict might have differed between men (power threat) versus women (sexual threat). Two studies investigated whether a refugee threat is likely to influence one's national identification, and how sex moderates this relationship. Study 1 found that Korean who perceived more refugee threat showed higher national identification of glorification, especially men did than women. Study 2

revealed that men who read an article on refugee threat reported higher national identification of glorification than women. These studies indicated that the sex differenc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s a causal factor and thus more fundamental explanation is needed.

**Keywords :** Refugees, Outgroup Threat, Sex Difference, Male Warrior Hypothesis, Evolutionary Psychology

***Student Number:*** 2017-23407